

정치평론 실천연습

김 학 노

영남대학교

Practicing Political Criticism

Kim, Hak Noh

Yeungnam University

초록

나는 재직 중인 영남대학교에서 10여 년 전에 ‘정치평론연습’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담당해왔다. ‘정치평론연습’은 학생들이 정치현상에 대해 말하기와 글쓰기를 연습하는 수업이다.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세우고 이를 말과 글로 잘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정치가나 정치평론가를 양성하는, 일종의 정치평론 실천연습이다.

이 글은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소개하고 스스로 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치학을 공부하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생각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수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좋은 글 고르기, 자기 이야기 쓰기(자기 소개서, 자기 추천서, 행장 등), 문화평론(영화평론과 서평 등), 본격적인 정치 및 사회 평론, 평론지 제작, 주제로 한국사회 읽기, 선배와의 대화 등을 소개한다.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얻은 교훈 두 가지를 강조한다. 먼저, 학생들과 서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과 선생이 서로 배우고, 특히 학생들이 서로로부터 수평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도 다른 분야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이를 ‘지적 능력’과는 다른 ‘감수성’이라고 본다. 정치평론연습을 통해 학생들의 감수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 정치평론, 글쓰기, 말하기, 토론, 서로 배우

Abstract

I have been opening “Political Criticism: Theory & Practice,” an undergraduate cours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Yeungnam University, for the last ten years.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political criticism and trains them in speaking and writing by exercising criticism on various political issues. The goal of the course is to help students articulate their own views on political issues and put their thoughts into words and letters. It helps, I hope, students prepare for actual political criticism by exercising writing and speaking on political issues.

Introducing the course in this paper, I wish to get my fellow scholars to think together about the desirable future of our discipline. The main activities in the course include: selecting the best criticism and the worst criticism; writing about oneself including self-introduction, self-recommendation, and self-obituary; cultural criticism such as movie criticism, literary criticism, and book review; criticism on current political or social issues; editing a collection of political criticisms; reading the Korean society with key words; dialogue with senior students or graduates who previously took the course, etc.

I would like to emphasize a couple of lessons that I got from the experience of opening the course. First, we should be ready to learn from each other. The teachers should not try to teach students unilaterally. Students and teachers should learn from each other. Students could learn from other students much better than from teachers. Second, students with low degree of academic performance may have good talents other than academic learning. I saw a high level of “sensitivity,” quite different from “intellectual capability,” in those students who did quite well in exercising political criticism. Hence the need to enhance the sensitivity of students by learning and practicing political criticism.

□ Key words : Political Criticism, Writing, Speaking, Dialogue, Mutual Learning

나는 재직 중인 영남대학교에서 10년 동안 ‘정치평론연습’이란 이름의 과목을 담당해왔다. ‘정치평론연습’은 학생들이 정치현상에 대해 말하기와 글쓰기를 연습하는 수업이다. 거의 매주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정치 일반과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자신의 견해

를 세우고 이를 말과 글로 잘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다. 정치가나 정치평론가를 양성하는 코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종의 정치평론 실천연습인 셈이다.

이 글은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돌이켜 보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정치학을 공부하는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수업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이 수업을 어떤 계기로 만들었는지 간단히 언급하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돌이켜본다. 궁극적으로 이 글이 정치평론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정치평론 교과목이 정치학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I. 수업 소개

1. 개설 동기

이 수업은 2004년 1학기에 처음 개설했다. 처음에는 3학점 6시간 실습과목으로 시작해서, 이론 및 실습 과목 3학점 4시간(2시간 이론 2시간 실습), 실습 과목 2학점 4시간, 이론과목 3학점 3시간, 이론과목 2학점 2시간 등으로 변해왔다. 강의형태의 잦은 변화는 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장단점에서 비롯했다. 처음 몇 년 동안에는 학과의 홈페이지에 정치평론연습 게시판을 개설해서 그 곳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도 온라인 상으로 참관하고 원할 경우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학과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된 이후 자료를 복구할 수 없어서 2008년부터 ‘다음’에 ‘정치평론연습’이라는 카페를 개설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¹⁾. 수업을 처음 개설할 무렵 정치외교학과가 속한 건물에 20여 대의 컴퓨터를 구비한 방이 새로 생겼는데, 이것이 수업을 개설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도난을 우려해서 문을 잠가 놓고 있는 현실이 못마땅해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시설을 활용할 방안이 있을

1) <http://cafe.daum.net/politicalcriticism>.

가 고민한 결과 이 수업을 구상했다. 환경의 요인 이외에 다음의 세 가지 의도가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구상하는 데 작용했다.

첫째, 학생들에게 글쓰기 연습을 시키고 싶었다. 여러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가령 ‘국제정치론’ 수업에서 『백범 일지』를 읽고 국제정치 시각에서 분석하는 글을 과제로 냈었는데, 학생들이 글쓰기의 기본이 많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문단 나누기, 초점 맞추기, 두괄식 등 아쉬운 점이 많았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나는 학창시절에 글쓰기 교육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경험이 있다. 우리 세대의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나는 대학시절에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리포트나 과제물에 의미 있는 코멘트를 받아본 적도 없다.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쓸 때 지도교수가 내 글을 여러 차례 수정을 해주었는데, 그때마다 글을 다시 고쳐 쓰기가 너무 힘들면서도 내 글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쓰기에 한번 눈을 뜬 이후에 나의 글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강의에서 학생들의 글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따라서 글쓰기 연습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강의를 생각해냈다.

둘째, 정치평론이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연습을 시키는 데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했다.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글쓰기를 한다면 정치 문제에 관해서 연습하는 게 당연하다. 문학도들은 문학평론, 미술학도들은 미술평론, 영화학도들은 영화평론을 배우거나 연습한다. 정치학도들도 정치학의 특성을 살려서 정치에 관한 평론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학의 특성화이기도 하고 정치학의 실용교육화이기도 하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취업하기에 적합한 영역이 많지 않다. 정계나 국제기구로 직접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언론(방송 및 신문) 분야를 구체적 목표로 삼고 준비하도록 권장했다. 학생들의 진로를 고민하다 보니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았다. 하나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 교원임용고시처럼 특정 과목들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다. 이 시험들은 합격하면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지만 불합격할 경우 다른 과목시험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다른 하나는 영어와 상식을 위주로 선발하는 시험이다. 여기에는 언론사와 일반 기업들이 해당한다. 학생들의 취업을 고민하다가 영어와 상식을 위주로 하는 진로를 권장하게 되었고, 글쓰기와 말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수시로 ‘기자반’이나 ‘기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관련 동아리를 지도하기도 했다. 모두 정치학을 취업과 연관시키려는 노력들인데, 정치평론연습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셋째, 정치지도자 교육을 위해서 정치평론 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평소에 정치외교학과의 학생들을 정치 및 외교 지도자로 육성하는 교육이 과연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영남대학교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과 교수들과 논의해서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를 (1) 민주시민 교육, (2) 정치·사회지도자 교육, (3) 글로벌 리더 양성으로 새롭게 정했다. 리더십 교육을 특성화해서 학과의 교과목도 대폭 개편했다.

그런데 학과 학생 중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너무 적었다. 졸업생들이 지방자치 선거로 진출할 만도 한데, 예상 밖으로 학생들은 정치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지 못하고 있었다. 곧 학생들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력이나 사회 경력 혹은 소위 ‘빡’이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난하고 연줄도 없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나이 지긋한 분들이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와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과 권력, 혹은 연줄이 없는 학생들 중 정치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고, 그 해답으로 정치평론 과목을 생각하게 됐다. 정치평론연습은 학생들이 정치와 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고 말과 글을 잘하는 연습을 한다. 돈과 권력이 없는 학생들 기댈 곳은 오직 자기 실력뿐이다. 시험을 통해 지도자의 길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공부를 특별히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고민이 정치평론연습 수업으로 이어졌다. 돈과 권력, 시험 능력 대신에 말과 글을 통해서도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본보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1) 정치에 대하여 스스로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고, (2)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잘 표현하며, (3) 나아가 상호간에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합의를 구축해나가는 리더십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삼았다.

2. 진행 방식

1) 강의

이 수업에서 나는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처음 수업을 개설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했고 강의를 할만한 지식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떠들기보다는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강했다. 그동안 약간의 강의를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늘 불만족스러운 결과만 나왔다. 강의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수업이 재미가 덜해지고 학생들도 흥미가 떨어져 보였다. 다만 왈찌의 책²⁾에서 2판 서문(Preface to the Second Edition)을 부분적으로 강독하고 시험을 봤다. 한편으로 영어 교육을 하고 동시에 좋은 평론가의 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어떤 학기에는 수업 시간이 아까워서 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한다.

때때로 김대영(2002)의 『공론화와 정치평론』을 읽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권의 『정치와 평론』을 읽고 발표하게 한 적도 있다. 김대영의 책은 정치평론에 관한 거의 유일한 입문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치평론의 전략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데 특히 유익했다. ‘정치평론학회’의 학술지인 『정치와 평론』은 정치평론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으며 어떤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읽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할 때 아웃라인(outline)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글의 중심 논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유도했다.

이처럼 다 함께 같은 글을 읽거나 학생들이 특정 글을 읽고 요약해서 발표하는 작업은 점점 안 하게 된다. 자칫 딱딱한 수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고,

2) Michael Walzer, *The Company of Critics: Social Criticism and Political Commitment in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Basic Books, 2002)

무언가 진리가 저기 있으며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무런 교재 없이 학생들 스스로의 생각만 가지고 평론을 직접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강의와 마찬가지로 정치평론에 대한 이론적 서적들을 읽는 것이 학생들에게 재미를 불러오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2) 주제

수업의 주제를 미리 정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 학기 동안 할 활동을 어느 정도 미리 윤곽을 정해 놓지만, 대단히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구체적인 주제와 다음 주 활동 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때 그때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다음 수업의 주제를 미리 정해 놓은 경우에도 새로운 사건이나 큰 이슈가 생긴 경우에는 시의성을 생각해서 먼저 다룬다.

이는 처음 강의를 개설했을 때에 비하면 큰 변화다. 처음 강의를 개설했을 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들어갔다. 지난 10년 동안 가끔씩 이런 시도(준비)를 한 적이 꽤 있다. 나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나의 지난 경험을 돌이켜보면 무엇을 할지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나 제안은 그만큼 줄어들는다. 수업의 재미도 없어진다. 수업 시작 전에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있어야겠지만, 구체적인 흐름을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즐거운 수업을 만든다.

요즘에는 학기 초에 학생들이 다루기를 원하는 주제나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도록 한다. 학생들의 제안 중에 아주 흥미 있는 새로운 발상을 찾을 때가 자주 있다. 가령 2012년도에 수업을 시작할 때 언론정보학과의 한 학생이 이 수업을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토론 끝에 반대하는 학생이 있어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이전까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발상이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였다. 학생들이 제안한 주제나 활동을 모두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다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 대체로 그 제안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자체의 힘으로 채택되는 편이다.

3) 토론과 댓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토론이다. 개별 발표와 전체 토론, 그리고 모듈별 토론을 활용한다. 실습수업으로 분류되어서 수업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평론을 찾거나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 쓰는 연습은 주로 과제로 제출한다. 학생들이 집에서 과제를 해오고 수업시간에는 과제물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과제물을 검토하면서 가급적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고 토론을 활발히 하도록 하는 게 나의 목표이자 바램이다.

전체 토론이 잘 안 될 경우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모듈별 토론 방식을 자주 활용한다. 30명 정도의 학생을 4-5개의 모듈로 나누고, 각 모듈별로 먼저 토론을 하게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각 모듈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발표한다. 전체 토론을 하면 열심히 말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나뉘지는데, 모듈별 토론을 하면 한 집단에 5-6명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활발하게 토론에 임한다. 교실이 무척 소란스러워지고 여기저기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커진다. 평상 시에 입을 열지 않던 학생들도 모듈 토론에 서는 모두 입을 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모듈별 토론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모을 때에는 단순히 논의사항을 듣기도 하지만, 모듈별로 자기 모듈의 주장이 전체의 의견으로 채택되도록 경쟁하기도 한다. 자기 모듈의 논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다른 모듈에서 비판하고, 서로 옹호와 비판을 반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모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대체로 각 모듈별 논리력의 차이가 반영되는 편이다.

‘다음’에 ‘정치평론연습’ 카페를 열고 수업을 그곳에서 하면서부터는 학생들

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댓글을 많이 사용한다. 처음에는 모든 학생이 코멘트를 달도록 하기 위해서 댓글 방식을 활용했다. 어느 한 학생의 글을 읽고 서로 코멘트를 하는 시간에 열심히 말하는 학생만 계속하고 말하지 않는 학생은 계속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말로 코멘트를 안 하던 학생도 댓글로 하게 하면 꽤 열심히 한다. 코멘트를 달 때만 아니라 최고의 과제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댓글을 통해 한 표씩 행사하도록 한다.

말을 잘 안 하는 학생도 쉽게 참여하는 것이 댓글의 중요한 장점이다. 또 모든 학생들이 댓글을 달다 보면 새롭고 기발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교수인 내가 혼자서 코멘트를 한다면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생들이 교수로부터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댓글의 또 하나 좋은 점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이다. 수업에서 토론했던 논점에 대해서 수업 시간 이후에, 또는 다음 수업을 위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업 시간이 되기 이전에도, 학생들이 서로 열심히 댓글을 달아서 코멘트를 해주고 토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이버 공간이 갖는 장점이다.

댓글의 단점은 말을 잘 안 하는 학생이 더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말로 코멘트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댓글로 코멘트를 하게 했는데, 때로는 댓글을 쓰는 것이 말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댓글을 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로 논평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상당히 난감했다. 활발한 토론 대신 침묵이 흐를 경우 댓글을 달게 하는 것이 당장은 편한 방식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학생들의 입을 더욱 닫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댓글도 토론의 일부다. 말이나 댓글을 통한 토론이 얼마나 활발한지는 수업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3년 1학기에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주간과 야간에 따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야간 게시판이 항상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만큼 시끄러웠다. 온라인에서의 차이가 오프라인(수업시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주간 수업 시간에 이러한 차이를 몇 차례 직접 언급하자 점차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대체로 활발하게 토론하는 학생이 몇 명 있으면 그 수업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활발한 토론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로 열심히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서 코멘트를 해주는 학생이 몇 명 있으면 그 수업시간에는 활발한 댓글 문화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II. 주요 활동

그 동안 이 수업에서 수행한 연습은 다양하다. 어떤 활동은 ‘정치’나 ‘평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평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1. 좋은 글 고르기과 쓰기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좋은 평론 찾기를 한다. 최근 1-2주 사이에 다양한 매체에 실린 글들 중에서 각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평론을 선정하고 그 선정 이유를 밝히게 한다. 수업의 전체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함께 모든 학생들이 선정한 글들을 읽고 말이나 댓글로 좋은 글이라고 공감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수업의 인원이 많은 경우 대여섯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서 각 모둠별로 가장 좋은 평론을 선정하게 한다. 즉 조별로 각자 가장 좋은 평론이라고 선정한 것들을 돌려보고 토론을 거쳐서 그 조에서 가장 우수한 평론을 선정한다. 이후 각 모둠에서 선정한 우수평론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것은 왜 안 좋은지 전체 토론을 통해 정한다. 이 때 각 모둠은 자기 모둠의 우수평론이 최우수평론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토론에서 최우수 평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많다. 투표는 말로 할 수도 있고 댓글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연습을 나쁜 평론 찾기에서 반복할 수 있다.

총선이 있을 때에는 좋은 평론과 나쁜 평론 선정하는 작업을 정당별로 나누어서 실시했다. 가령 학생들을 4개의 기존 주요 정당으로 나누고 자기 정당의 입장에서 ‘당파적 보편성’을 가장 잘 살린 좋은 평론과 나쁜 평론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 정당별로 한 개의 평론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다.

이런 연습은 자연스럽게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연결된다. 좋은 글, 좋은 평론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이미 자신이 가장 좋은 평론이라고 선정한 글에 대해서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이유를 제시했기 때문에 좋은 글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다. 따라서 좋은 평론 고르기 연습은 좋은 글의 기준을 수립하는 토론으로 연결되기 쉽다. 때로는 글쓰기 평가기준으로 아래 <참고 1>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한다.

좋은 글의 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중립성 대 당파성’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참고 1. 좋은 글의 기준

제목	제목이 눈길을 끌고 글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가?
두괄식과 문단 나누기	글의 내용을 첫 문단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문단 나누기가 잘 되어 있는가? 한 문단에 한 가지의 주제만 있고, 같은 주제의 이야기가 여러 문단에 흩어져 있지 않은가? 문단들 사이의 연관성이 논리적이고 유기적인가?
문제제기	자기 주장이 뚜렷한가? 독창성이 뚜렷한가? 시의 적절한가?
내용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는가?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는가? 분석적인가?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창의적 사고나 근거가 있는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공론화 지향	세력화를 지양하고 공론화를 지향하는가? 토론과 소통, 매개 역할에 기여하는가? 보편성과 당파성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가?

논의하기도 한다. 이 주제는 왈짜가 얘기한 ‘비판적 거리 두기(critical distance)’의 문제와 연관된다. 비판적 거리 두기가 짧아야 하는지 멀어야 하는지의 문제다. 이 주제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글쓰기가 당파성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며 당파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게 하고 싶어서다.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다음 평론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면, “(1) 중립적이고 객관적, 보편적인 평론이 좋다. (2) 당파성을 갖는 평론을 써야 한다. (1)과 (2) 중에서 어떤 입장을 옹호합니까? 각자 하나를 선택하고, 그 근거나 이유, 주장을 적어보세요.”라는 과제를 내서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게끔 한다.

본격적인 글쓰기 연습에 들어가서 글쓰기의 ‘요령’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다만 두괄식과 문단 나누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하고, 나도 가끔은 좀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 강박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몇 권의 글쓰기 책들을 검토했지만 특별히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방식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5-6년 전부터 5문단 글쓰기 연습을 시킨다.

5문단 글쓰기는 다소 기계적이다. 첫째 문단에는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자기

참고 2. 5문단 글쓰기 (Outline)

- | |
|---|
| <p>(1) 첫 문단: 전체 주장(결론)
- 소주장 1,2,3 간단하게 언급</p> <p>(2) 둘째 문단: 소주장 1
- 근거나 이유, 또는 사실관계, 사례, 설명 등 (3가지)</p> <p>(3) 셋째 문단: 소주장 2
- 근거나 이유, 또는 사실관계, 사례, 설명 등 (3가지)</p> <p>(4) 넷째 문단: 소주장 3
- 근거나 이유, 또는 사실관계, 사례, 설명 등 (3가지)</p> <p>(5) 마지막 문단: 결론(첫 문단과 같은 사실상 내용이지만, 다른 표현)
- 소주장 1,2,3 간략하게 언급 (다른 표현으로)</p> |
|---|

주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두괄식). 둘째와 셋째 및 넷째 문단은 모두 첫째 문단에서 밝힌 전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주장들이다. 이들은 약간씩 다른 내용이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각각의 문단에서 제시하는 소주장에 필요한 근거나 사례 또는 설명을 3가지 정도 포함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문단은 하나의 내용으로만 구성되며, 문단과 문단 사이에 논리적 연계가 명확하고, 전체적인 윤곽이 논리적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서 한 얘기들을 다시 하되, 새로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약간 고정된 틀을 강요하는 것 같지만, 두괄식, 문단 나누기, 분석적 사고하기 등에 두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5문단 아웃라인 작성 연습을 먼저 하고 그 아웃라인에 살을 붙여서 평론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우선은 아웃라인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이 수업의 과제가 많은 편인데 아웃라인만 작성하면 과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논리적 글쓰기 구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아웃라인 작성이 완성된 평론 작성보다 더 효과적인 연습일 때도 있다. 전체적으로 논리적 연관성을 높이는 데 완성된 평론보다 아웃라인을 분석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5문단 아웃라인만 가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꼼꼼하게 따지다 보면 학생들의 논리적 분석력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다. 초점을 좁게 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연습을 위해서도 아웃라인이 효과적이다. 학생들이 글의 초점을 좁게 잡고 거기에 국한해서 일관되게 쓰는 게 힘들다. 아웃라인이 초점을 좁게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면, 전체적 글쓰기에서 초점을 좁게 유지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2. 자기 이야기

이 수업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의 하나는 자기 이야기다. 우선 자기소개서 작성 연습을 한다. 자기소개서는 학생들이 취업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이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위의

5문단 글쓰기에 입각해서 아웃라인을 작성하도록 한다. 전체적인 글의 윤곽이 짜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글이 ‘눈길’을 끌어야 한다는 점이다. 거짓 없이 쓰는 것은 기본이다.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수백,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몇 명 또는 몇 십 명만 간추리면 된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처음부터 눈에 띄지 않고서는 심사자가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이유다. 일단 완성된 자기소개서나 아웃라인은 학생들이 함께 읽고 코멘트를 해준다.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기도 한다). 학생들이 서로 코멘트를 해주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과정이다. 학기 초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경우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친해질 수 있다), 선생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서로서로의 코멘트를 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어떤 학기에는 자기추천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자기추천서는 마치 교수가 자신(학생)을 위하여 추천서를 쓰는 것처럼 학생들이 교수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다. 이 작업은 실질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이유로 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내가 세세히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쓰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추천서를 쓰게 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세울 점을 강조할 수 있고 또는 자신이 내세울만한 경력이나 활동이 너무나 적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좀더 분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추천서도 거짓 없이 쓰되 아주 독특해서 한눈에 띄게 써야 한다.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작업으로 사망기사(obituary) 쓰기 연습이 있다. 먼저 미국의 신문들에서 사망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우리의 신문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사망기사는 짧은 부고로만 나와 있고 정작 사망한 사람 당사자에 대해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다. 최근 『행장』(유민호 2012)이라는 책이 나온 이후로 사망기사 대신에 행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행장 작성 연습은 우선 학생들이 재미 있어 하고, 자기의 삶을 미리 앞서서 가상 경험해보는 의미가 있다. 자기소개서나 자기추

천서는 과거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다. 반면에 행장은 자기가 언제쯤 죽을 것인지 가정하고 그때까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써보는 연습이다.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돌아보게끔 하는 매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장 활발하게 발휘되는 연습이다. 재미있는 행장 한편을 소개한다(<참고 3>).

참고 3.

서울(京)의 용(龍)을 떠나 보내며

이경용

지난 금요일, 추적추적 비가 오는 밤. 우리는 한 친구를 떠나 보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터라 그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은 혈육인 여동생을 포함한 가까운 일가 친척, 그리고 몇몇 오랜 친구뿐이었다. 본인도 알고 있었다. 본인의 급한 성질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무척이나 산만하고 오지랖 넓어 어디 한군데 오래 진중히 붙어있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목숨도 오래 붙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던 그였다. 그러나 이별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토록 사랑하던 모교인 영남대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 결국 참석하지 못하고 홀연히 가버렸다. D-Day를 하루 앞둔 밤이었다. 그의 나이 57세.

나와 이경용의 인연은 유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독특한 캐릭터를 본적이 없었다. 젊은 이경용은 어떻게 보면 배짱 있는 사람이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한 소리를 하든지 아니면 깡판을 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같았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담배를 피우며 행패를 부리던 동네 양아치들을 테니스라켓으로 훈계(?)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때의 경험 때문이었을까. 그는 인권변호사에서 검사가 되기로 진로를 바꾸었고, 훗날 2030년 초선 국회의원 시절에는 “양아치 및 깡패 교화를위한치안보호특별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가진 수송차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음(데시벨)정도를 규제하고,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거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륜 자동차를 몰 경우 시민들에게 끼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경찰, 검사)의 재량대로 즉결처분(사살) 또는 ‘양아치 및 깡패교화소’(국정원 산하의 특수국

가기관)에 보내 1~2년간량 중노동과 언행순화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당시 진보 측에서는 “인권을 무시한 잔혹한 처사”, “머리털 난 전두환”, “삼청교육대 2탄”, “back to the 민정당”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심지어 급진좌익들의 테러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는 반대의원을 227번을 만나 설득하고 984통의 전화와 4012통의 문자를 발송한 끝에 압도적인 수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시행 이후 대도시의 유흥가 주변 또는 주택가에서 행패를 부리던 양아치, 깡패, 조폭들이 사취를 감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렇게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태도는 호불호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을 대하는 대중이나 반대파 정치인들의 태도 또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뉠 수 밖에 없었다. 이경용이 가장 존경하던 은사이자 멘토인 김학노 영남대 석좌교수는 이경용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경용씨,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가 모교 정외과 학생회장에 출마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김 석좌교수가 그에게 해준 조언이라고 한다. 그는 “교수님께서 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왜 이렇게 적이 많지?”라고 한탄하면서도 실제로 그의 정치적 행보는 아(我)뿐만 아니라 비아(非我) 또한 엄청나게 양산하고 있었다. 만약 그가 김 석좌교수의 충고를 따라 서로주체적인 통합을 하였더라면 암살 테러라는 작금의 비극적인 죽음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홀로주체적인 통합과 서로주체적인 분리로 적(非我)을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뚝심 있는 정치인 이경용 또한 있었을지 의문이다. 호불호가 명확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은 태도와 언행 탓에 적이 많은 이경용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 그가 가장 싫어하던 정치인 노무현이 overlap되는 것은 나만의 착시일까.

여하튼, 영남대를 졸업한 그는 해군 중위 제대 후, 최악의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탓에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던 검사의 꿈을 접는 듯 하였다. 그가 받은 졸업평점은 3.0을 넘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당시 토익 990점 만점에 989점, LEET 전국 수석을 하며 모교 영남대 로스쿨에 입학한다. 이후 그는 검사로 임용되어 한동안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다. 검사 재임시절 당시 그는 비리에 연루된 진보정권(여당)과 보수정당(야당)의 실세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구속하며 유명세에 오르게 되었다.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시절, 직접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들고 양아치와 깡패 검거를 진두지휘한 유명한 일화는 지금도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 회자되곤 한다. 검사 이경용을 모델로 모 방송국에서는 드라마 ‘알람시계’를 제작하여 흥행몰이를 하기도 하였다. 알람시계처럼 정확하고 공정하게 검사직을 수행하며 사회적 알람 역할, 즉 사회를 각성시키는 검사라는 의미였다. 이 후 ‘알람시계 검사 이경용’은 ‘정치인 이경용’으로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다. 정치인 데뷔 이후의 업적은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던 ‘양아치 및 깡패교화를위한 치안

보호특별법' 이외에도 보수정치인의 이미지에 맞지 않은 많은 법안을 상정하여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그가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남들이 가진 3가지가 없습니다. 부인과 자식을 포함한 가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돈, 마지막으로 집 조차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랬다. 지난 주 그가 떠난 뒤 지인들이 전하는 그의 통장잔고는 500여 만원 남짓으로 소박한 장례를 치르기에 많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금액이었고, 그가 사는 집은 장기전세아파트(SHIFT), 그가 타던 친환경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리스(장기대여)한 것이었다. 독신이었던 그가 오로지 욕심 냈던 것은 사회와 인류를 향한 크나큰 관심과 애정뿐이었다. 이런 이경용의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남긴 크나큰 선물일 것이다. 나는 정치인의 의지와 노력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이경용은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그는 정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정치인 이경용이 아닌 인간 이경용으로 기억 되길 바랐던 사람. 박수칠 때 떠난 그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47년 5월 이경용을 추모하며, 그의 오랜 친구 ○○○

3. 문화평론

이 수업에서 정치평론 못지 않게 꾸준히 실시하는 연습은 영화평론이나 문학평론(서평)과 같은 넓은 의미의 문화평론이다. 우리는 직접 정치현장에 있지 않을 때에도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정치를 본다. 촛불 집회와 같은 정치현장에 직접 참여해 있을 경우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들으면서 정치를 경험한다. 이는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 정치평론이 그 본질에 있어서 영화평론이나 문학평론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영화평론은 처음 이 과목을 개설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생각해낸 아이템이다. 일단 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영화를 보고 평론을 쓰게 하고 싶었다. 맨 처음 같이 본 영화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다룬 「선택」이었다. 이후 다양한 영화를 골라서 영화평론을 실시하고 있다. 「선택」 이외에도 *Goodbye*

Lenin, 「송환」 「미션」 「모던 타임즈」 「경계도시2」 「빌리 엘리어트」 「뽕뽕클럽」 등에 대한 평론연습을 했다.

학생들이 영화를 같이 보면서 공감하고 재미 있어 하고, 또 두 시간 정도의 압축된 시간 속에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서 영화는 평론연습을 하기에 적합하다. 같은 영화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분석하는 점, 같은 영화를 보면서 서로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평을 하는 점에서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영화평론 연습에서 가장 인상적인 글은 처음 이 수업을 열면서 첫 시간에 보았던 영화 「선택」에 대한 서광호의 평론이다. 서광호의 아래 평론은 나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었다(참고 4). 학생의 글로서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이다. 표절을 의심하기까지 했지만 그의 글이 분명했다. 첫 번째 과제에서 서광호의 글을 접하면서 나는 정치평론연습 수업에 대해 더 많이 긴장하게 됐다. 학생들이 대단히 진지하며, 내가 평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참고 4.

우리는 전향한 시형수인가?

서광호

영화 「선택」은 비전향 장기수인 「김선명」이 선택한 양심과 사상을 통해 「자유」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이것은 곧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이자 나무람이다. 영화가 상기시키는 건 단편적인 독재의 기억이 아니라 잿빛공간에서 느끼는 주인공의 처절한 자기물음과 탐구이고, 작가가 말하고 있는 건 자기를 파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책이다. 영화의 대사와 영상을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선택이란 하나를 버리는 것”에서 철학적인 자기탐구의 흔적이 묻어나고, “자유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에서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몸을 맞추어 누워서 스스로를 재단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날 선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주인공의 내면에 주목한 줄인과 양각앵글의 강압적인 시선, 부감앵글의 나약하고 왜소한 주인공의 상태를 묘사한 영상이 이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교도소라는 잿빛의 처절한

공간 속의 철학적인 고뇌의 무게에 독재라는 혹독한 시대상황은 영화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주인공의 양심을 시험하고 측정하는 하나의 바로미터로 제시되어 있었다. 0.7평의 독방은 분명 시대가 준 상황이지만 그가 진정 이겨야 할 것은 자신이었던 것이다.

영화가 쏘아 올린 메시지는 ‘파란색’이라는 기호로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영화에서 나타난 ‘파란색’은 강제성과 폭력성이고 고뇌이다. 자유에 대한 압력은 외부에서뿐 아니라 자기 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있다. ‘파란색’이 가지는 이런 의미는 이 영화를 ‘색’으로서 읽어내는 데 추호 부족함도 없게 한다. 영화의 기본적인 구조와 색의 대조와 대비로서 ‘파란색’의 상징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되풀이 해석해 낼 수 있다. 필자는 무채색 대 유채색, 파랑 대 빨강, 두 가지의 파랑 대 파랑, 파랑 대 하양 등으로 색을 대조, 대비시켜 평을 전개하겠다.

<무채색 대 유채색>

무채색은 과거와 암울한 시대상황을, 유채색은 현재와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영화의 시작은 1973년 6월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등지의 교도소에 중앙정보부의 지휘와 책임 아래 사상전향공작반이 설치되고 유신정권의 강제전향공작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전향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재판 없이 계속 구금하기 위해 사회안전법을 만든 때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 4·19 이후 장명정권 때 20년 형으로 감형된 이들(간첩죄를 제외한 모든 무기수)이 1970년대 초반에 만기 출소하게 된다는 사실과 유신정권의 국민운동, 베트남전 종결, 긴급조치 9호와도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상황이 낡은 교도소의 ‘잿빛’으로 축소되어 있다. 그래서 영화의 썸 또한 대부분 ‘교도소’로 채워져 있다. 독방, 통로, 강당, 좁은 운동장, 통샷으로 잡은 교도소, 사무실, 면회실. 영화 초반 이동 장면에서 주인공의 시선으로 보여주는 풍경과 회상장면, 그리고 후반부의 실제 다큐 영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교도소 안의 썸이다. 물론 영화의 소재가 장기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표면적인 화면이 아니라 감독의 시선이다. 감독은 시대 상황을 무채색과 유채색의 대비로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감 중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감 중의 풍경은 가을이다. 겨울이라는 혹독함을 예견하는 가을. 푸른빛이 바랜 가을의 풍경으로서 암울한 시대 상황과 주인공의 혹독함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후반 화단의 모습과 달라진 교도소 환경은 달라진 시대의 상황, 즉 현재를 뜻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채색과 유채색은 단지 환경 상황일 뿐이라는 점이다. 연필의 흑심을 감싸고 있는 나무와 같다. 연필에서 나무가

중요하기는 하나 보다 중요한 건 욕심이다. 흰 송이에 자신을 갈아내면서 메시지를 남기는 욕심에 그 뜻이 있는 것이다. 그가 바로 주인공 ‘김선명’이다.

<파랑 대 빨강>

파랑(죄수복)은 전향을 강요하는 남한 사회의 폭력이자 강제성이고, 빨강은 이런 폭력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대치시킨 단지 가상의 ‘적’일 뿐이다. 적어도 영화에서 빨강은 파랑 스스로의 야만성에 면죄부를 주는 구실을 할 뿐이다. 파랑의 자기방어 논리로 이용하는 빨강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빨강, 즉 남한 사회의 ‘빨갱이’에 대한 감독의 의문이자 해답이다. 남한 사회에서 작용하는 빨강은 그 실존도 형태도 모두 부풀려지고 있다는 고백이다. 영화 속에서 수없이 지칭되는 “빨갱이”이지만 색깔로서 빨강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상징이자 메시지이다.

<두 가지 파랑 대 파랑>

파랑 대 파랑의 대비야말로 영화의 핵심적인 구조이다.

첫 번째 파랑 대 파랑은 비전향 장기수의 죄수복 파랑과 석방이라는 미끼를 물은 ‘떡봉이’, 바로 매질하는 깡패가 입은 죄수복의 파랑이다. 영화의 단편적인 갈등 구조는 주체로서의 주인공(을 포함한 장기수)과 대상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석방은 아니다)이다. 거기에 반 주체로서 강제적인 전향제도가 등장한다. 허나 이는 말 그대로 단편적인 구조이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대상(양심의 자유)을 실현함에 있어 외부의 강제력과 폭력성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진정으로 이겨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바로 자신이 주체이자 반주체인 것이다. 같은 파란색의 죄수복을 입은 깡패들의 몽둥이는 자기자신의 고뇌의 방망이다. 첫 번째 파랑 대 파랑은 바로 철학적 고뇌가 담겨 있는 자아 대 자아의 싸움이다. “선택이 하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주인공의 말은 잔인한 경험과 외롭고도 깊은 사색이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파랑 대 파랑은 교도소 안에서의 죄수복과 출감 후의 죄수복이다. 주인공이 끝내 전향하지 않고 출옥하여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실체 다큐)에서 마치 해피엔딩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단호히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바로 출소하는 장면에서 입고 있는 파란 죄수복이 그것을 증명한다. 파랑으로 대표되는 전향의 강제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무채색의 세상이나 유채색의 세상에서나, 과거와 현재, 독재와 지금의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빨갱이’가 아직도 중심 담론에 위치해 있는 정치현실과

국가보안법, 보호감찰법, 준법서약제도와 같은 제도가 아직도 시들지 않고 활개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45년만에 허락한 어머니와의 만남은 고작 20분 남짓이고 다른 가족들이 더 이상의 대면을 꺼려하여 어머니의 죽음조차 알리지 않은 상황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반 현실 속에서 ‘빨갱이’라는 낙인은 다른 가족들에게 연좌제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아직도 이러한 인식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안에서든 밖에서든 양심의 자유는 항상 위협받고, 감시당하며, 강요된다는 점이다. 이를 돌려 생각하면 ‘선택’, 즉 자유는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으로 쟁취하며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은 영화 속의 양심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현실 속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영화 후반 실제 모자상봉 영상이 흑백으로 처리된 것은 사라지지 않는 현실의 흑백논리 속에서 ‘석방된 양심수와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가?’라는 반문을 감독의 영화적 감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파랑 대 하양>

파랑 모포와 죄수복의 색은 앞에서 언급한 강제성과 다름 아니고 하양은 모포에 바느질 된 실과 ‘김선명’과 ‘중앙정보부’ 직원의 머리에 세월이 남기고 간 흔적이다. 하양은 앞에서 언급한 파랑의 부정적 의미를 관통하고 덮어버리고 싶은 감독의 염원이다. 하얀색 하면 연상되는 순수와 순결의 이미지는 바로 영화에서 ‘양심의 자유’로 환유(換喻)된다. 영화 초반 모포를 걷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 때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모포에 흰색 실이 바느질 된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파랑의 천에 순결로 상징되는 양심의 자유를 심고자 하는 의지의 상징이다. 그리고 실로 목을 메기도 한다. 이는 순결한 죽음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순교이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교도소를 덮는 하얀 눈이 내린다. 겨울은 혹독하지만 눈은 순수하다. 겨울에 내리는 하얀 눈. 이들(비전향 장기수)이 매마른 땅을 적시는 자유의 단비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요, 화해를 원하는 감독의 시선이다. 이는 ‘김선명’과 ‘중앙정보부 직원’이 영화 후반에 사무실에서 가족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다. 두 사람은 죄수복과 양복의 차이로 비유되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도, 가족 얘기와 세월 앞에서 희석되어 버린다. 하얗게 세어진 두 사람의 머리는 세월이 내려준 하나의 성수와도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형수인가?’라는 질문에 답해보자.

영화에서 비전향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한 인간의 끊임없는 자기싸움이

라면 자신과 현실에 침묵하는 우리는 분명 전향한 사람들이 아닌가 묻고 싶다. 깊은 사색을 통해 우리는 자기를 들여다보고 팔 줄 아는가. 그렇지 못하기에 자존심이 없고, 그리하여 자유정신이 없는 것은 아닌가. 자유에 대한 결핍을 인식하지 못한 체 정치라면 구차한 외교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는 일로 알고, 삶이라면 그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것쯤으로 아는 건 아닌가. 직업 하면 입에 풀칠이 목적이고, 사업 하면 당장 내일 보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전향이다.

골드스미스는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라고 하였고, 마틴 루터 킹도 “악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로 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에드먼드 버크 또한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신랄한 사람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뿐이다” 하지 않았던가. 사회에 대한 침묵은 바로 생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노력도 필요 없는 사형수와 뭐가 다른가!

영화평론과 마찬가지로 서평연습도 매 학기 실시하는 편이다. 학생들이 전문 서적이 아닌 소설이나 역사책 또는 만화책을 읽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 서평을 할 책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정하되 영남대학교 법정관 420호와 419호에 있는 책들로 한정한다. 기왕에 이곳에 모아놓은 책들을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고, 또 그 방에 있는 책들이 모두 양질의 도서들이라고 생각해서다. 학생들은 주로 소설책을 많이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소설을 선택하는 게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방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겠다. 법정관 420호는 10여 년 전부터 ‘정치외교학과 자료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자료실은 전공관련 책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 책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만화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지를 비롯한 다양한 소설책, 역사 및 철학 책, 기타 다양한 인문사회 교양 책들을 준비했다. 처음에 이 방을 만들 때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준비와는 거리가 있는 폭넓은 교양 책들을 읽게 하고 싶은 것이었다. 언젠가 우연한 계기에 이런 취지를 알게 된 최재천 국회의원이 트럭 한 대 분량의 책을 보내왔다. 비슷한 시기에 영남대 사학과 출신으로 현재 대학로에서 ‘이음’이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조진석(‘나와 우리’ 사무국장)씨도 같은 취지로 엄청난 양의 책을 보내왔다. 419호에 자료실을 확대했다.

서평연습에서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책의 내용을 요약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점은 영화평론에서도 마찬가지다. 영화나 소설(책)의 내용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요구한다. 평론을 전개하면서 군데군데 필요한 경우 책의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단순한 소개나 요약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다른 하나는 책을 쓴 저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론을 쓰는 자신의 얘기를 하라는 점이다. 서평연습에서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책의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평하면서 자꾸 저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서평이 책의 소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정하고 책의 내용을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문한다. 쉽지 않은 작업이다. 서평을 과제로 한 다음 학생들이 서로의 서평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평론한 사람 자신의 이야기가 빠졌다는 논평이 자주 나온다.

시평연습도 시작했다. 책이 아니라 시 한편을 대상으로 평론을 작성하는 연습은 2012년에 처음 실시했다. 시평을 하게 된 계기는 서평연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자꾸 요약하기 때문이었다. 책의 내용을 요약하지 말라고 강조해도 처음 서평을 쓰는 학생들로서는 쉽지가 않은 일이다. 어떻게 하면 요약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를 생각하게 됐다. 시는 요약하려고 해봐야 할 수가 없다. 또 해석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한 편 정하고 그 원문을 적은 다음에 5문단으로 평론을 작성하게끔 해보았다.

과제를 내면서 과연 학생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한 과제가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소화해냈다. 아직 한 차례밖에 시도하지 않아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책의 소개에 그치지 않는 글쓰기를 위해서 시평연습이 괜찮은 시도인 것 같다. 앞으로 더 자주 사용할 계획이다. 시평론의 한 사례를 아래에 소개한다(참고 5). 댓글도 덧붙였다. 댓글을 보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5.

2001년 4월 10일, 인천

신현수

2001년 4월 10일, 인천
 2001년 4월 10일 인천은 지옥이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은 지옥이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인권? 그 말은 웃기는 짜장이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 그 말은 너무 고상한 단어였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서는
 신자유주의 다 좋으니 목숨만 살려달라,
 인권 따위 그런 거 다신 말도 안 꺼낼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
 아, 공장으로 안 돌아가도 좋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무얼 잘 못했는지도 모른 채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그들은 우리를 방패로 찍고 구둣발로 짓밟았으며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래서 머리통이 깨지고
 얼굴에서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꺾이고
 카메라에 피가 튀었다.
 그 날 2001년 4월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지은 죄도 없이
 왜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쳐져야 하는지
 왜 구둣발로 짓밟혀야 하는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지만,
 망한 회사를 왜 우리 노동자만 책임져야 하는지
 왜 우리만 집도 뺏기고 직장도 잃어야 하는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지만,
 노조의 출입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노조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게 그렇게 죽을죄인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날,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서 우리들은
일단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중요한 일이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그곳은 지옥이었으므로.

<시평론>

임주석

이 시의 저자 신현수 선생님은 내 모교 선배이자 모교 국어교사였다. 신현수 선생님의 시에는 다른 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사여구가 없다. 대신에 신현수 선생님의 시에는 우리 사회의 고통 받는 이웃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이 담겨있다. 이런 시는 읽는 이를 각성하게 한다. 나는 읽는 이를 각성하게 만드는 힘이 좋은 시의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2001년 4월 10일, 인천'이란 시는 제목 그대로 2001년 4월 10일 인천의 모습을 다룬다. 2001년 4월 10일 인천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나는 그때를 어렵듯이 기억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 친구들 아버지 중에 대우자동차에 다니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슨 영문인지 당최 알 수 없었지만 대우자동차 아저씨들이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성인이 되어야야 그때 대우자동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다. 2001년을 즈음해서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났다. 그리고 사측은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해버린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이를 강경 진압했다. 이것이 이 시의 대략적인 배경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정말로 노동자들에게는 인권이 없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2001년 4월 10일 인천에서만 일어난 일인가? 아니다. 이와 같은 일은 쌍용자동차에서, 한진중공업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사측은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산다. 그 짐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다. 이렇게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을 국가는 방치한다. 정치권도, 언론도 이에 무관심하다. 결국 노동자들은 저항을 하지만 국가는 폭력으로 대응한다. 이 시에서는 그러한 현실

을 '지옥'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저자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지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해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우리 노동자들', '우리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그들과의 연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인권? 그 말은 웃기는 짜장이었다. 2001년 4월 10일 인천 대우자동차 앞에 모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신자유주의? 그 말은 너무 고상한 단어였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인권이니 신자유주의니 하는 말들은 그야말로 웃기는 짜장이었고, 고상한 단어에 불과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 소상공인, 서민들에게 요즘 한창 나오는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국민통합이니 하는 단어들 역시 웃기는 짜장이고 고상한 단어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가, 그리고 정치가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초등학교 시절 아침 등굣길마다 봤던, 대우자동차 잠바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던 아저씨들. 나는 커서 저 아저씨들처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 추억이 있는 나에게 '2001년 4월 10일, 인천'이란 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시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은 내 친구들의 아버지이자, 형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에 또 한 번 가슴 아팠다.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무관심하거나, 마치 노동자들이 문제라는 투로 기사와 사설을 쓴다.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권은 이윤배반적인 태도로 노동자들을 기만한다. 그런 상황에서 신현수 선생님의 이 시는 더욱 가치가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읽는 이를 각성하게 한다.

<덧글>

- 좀더 큰 목소리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
- 자신이 겪은 배경을 토대로 적어서 그런지 쉽게 잘 읽어졌습니다. 노동에 대한 아픔과 우리나라의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시와 더불어 지적하여 더욱 와 닿았습니다.
- 배경이 많이 쓰여서 아쉽네요. 어떻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평을 두괄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건 위주의 설명뿐인 것 같다. 다른 시에 서의 은유가 고작 미사여구로 표현된다는 점이 인상 깊다.
- 낭독이 좋아서 마치 그 곳에 있는 것만 같은 느낌으로 시에 집중할 수 있었다. 평론은 시에 대한 리뷰 느낌이 강하다. 처음에는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뒤로 갈수록 시의 구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마지막 문단이 가장 좋다. 현대 시대의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면 아주 좋은 평론이 되었을 것 같다.
- 초등학교 때부터 현대자동차 아저씨들의 빨간 옷을 많이 보고 자란 저와 비슷하네요. 그러나 피가 튀는 지옥의 장면을 본 적은 없는 저로서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한진중공업과 쌍용 사태 이전에 저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인권이란 웃기는 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은 이를 각성하게 한다....라, 이 글을 읽고 각성하는 사람들이 이미 각성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각성을 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주장하는 그분들이 각성해야 할 것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 시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하면서 흥미를 유발하였지만 시 자체의 제한적 내용만을 가지고 서술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신현수 선생님의 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인지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아픔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지 않네요.
- 시의 내용을 적절히 언급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네요. 현재의 문제와 연결시킨 것도 좋고^^
- 어두운 사회상을 잘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다만 평론의 내용이 곧 시의 내용인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 시를 적절히 인용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글을 쓴 것이 인상적이다. 네 번째 문단에서 [“2001년 4월 10일~ 단어였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다.] 이 부분은 그 다음 문장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빼도 무관할 것 같다.
- 현실과 자기 경험과 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평론한 점 좋았습니다. 그러나 글이 결론이 없는 미완의 느낌이 납니다.
- 자신의 경험과 시의 내용이 잘 연관되어 있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나열, 설명이 추가 된 점은 아쉽습니다.
- 글 속에 글쓴이의 진심이 보였고 그 진심이 이 시와 글쓴이의 많은 연관성으로 신뢰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시의 배경과 평론의 내용, 그리고 작성하신 분의 개인적 평가를 좀 더 유기적으로

- 배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방향은 아주 공감이 잘 됩니다.
- 시와 함께 직접 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 대해서 지적인 의도는 좋았고 많은 생각이 들게 했지만 너무 거기에 대한 설명에만 치중한 것 같다.
 - 시 낭송에 있어 너무 무미건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석 위주가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글 전체를 받들어 주는 첫 번째 문단에서 국어선생님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 뒤로 나온 이야기들을 받쳐줄 만한, 적절한 내용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 시의 내용이 잘 와 닿네요.. 글쓴이가 초등학교 시절 등굣길에 보았던 아저씨들이라는 표현을 쓴 데서 여운이 깊어 남습니다.
 - 노동자의 아픔을 잘 표현했다. 노동자의 아픔, 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 자신이 겪은 일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글에 좀더 집중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 자신의 배경을 잘 연관 지어서 설명한 글 같아 읽기 편했습니다.

4. 정치 및 사회 평론

다양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평론을 한다. 먼저, 토론을 통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선정하는 연습을 한다. 평론을 하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평을 할 것인지 선정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요 이슈 정하기는 주로 학기 초에 수행한다.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생각나는 대로 모아보고, 왜 그 이슈들이 중요하고 우리의 평론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다 함께 토론한다. 토론의 결과 (때로는 다수결로) 중요한 이슈를 선정해서 평론 연습을 한다. 모둠별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고 자기 모둠에서 선택한 이슈가 최종적으로 뽑히도록 모둠별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혹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그 선정 이유 3개를 적으세요”와 같은 과제를 내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대단히 역동적이다. 중요한 이슈들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이슈가 새로 나와서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그 이슈에 관해 평론연습을 할 때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평론연습이나 토론이 자연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평론의 대상이 되는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현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들만은 아니다. 어떤 학기에는 무엇이 중요한 이슈인지 집단토론을 한 결과 ‘낙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에 관한 찬성과 반대 평론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그 동안 대통령 탄핵, 이념, 근대성과 시간, 양심적 병역 거부, 미군 기지 이전, 사형제 존폐 여부, 군 대체복무, 인터넷 통제 문제 (미네르바 사건) 등을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내가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다. 가령 학생들의 열띤 토론 끝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된 ‘담뱃값 인상’ 문제가 있다. 나는 다른 수업에서는 사형제도 존폐와 같은 보다 비중 있는 이슈를 선택했음을 알림으로써 학생들이 좀더 의미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종용했다. 나의 노골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담뱃값 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택했다. 이후 전개된 토론에서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의 토론이 너무나 진지했고, 다른 거창한 주제를 논한 수업에 비해서 훨씬 피부에 와 닿는 얘기들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학생들과 나의 온도 차이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일을 도와주는 전직 대법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학생 중에는 대법관 출신이 편의점 일을 돕는 것이 서민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부인이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결국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하는 부유한 사람들에 속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편의점 주인들과 고용주 대 “알비”생의 관계로 만나면서 적대관계의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나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마침 『한겨레』에 실린 정영무의 평론이 편의점 업주의 비극적 삶을 언급한 것이 있어서 이 평론을 소개한 바 있다. <참고 6>의 댓글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대략 알 수 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학생들이 몸으로 살고 있는 세계 사이의 괴리를 볼 수 있는 사례다.

참고 6.

어느 비국민의 삶

정영무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퇴임하고 부인의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화제가 됐다. 김 위원장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이지만 편의점의 실상은 험난하다. 24시간 돌아가는 편의점은 삶의 최전선에 가깝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예사로 초과근무수당을 떼인다고 한다. 계산이 틀리면 책임져야 하고, 밥 먹을 시간은 물론 잠시 쉴 틈도 갖기 힘들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라고 나올 게 없다. 현대판 노예계약이라고 할 정도의 가맹점 본사 입맛에 맞는 계약조건으로 나가떨어지기 일쑤다. 그제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는 숨진 편의점 업주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남 거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임이무개씨는 1년을 겨우 넘기고 올해 초 자신의 가게에서 31살의 생을 마감했다. 시민단체와 청년유니온 등은 임씨를 전태일 열사에 비유하며 “이 청년도 온몸으로 전국 수십만 가맹점주들의 삶과 고통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2011년 말 편의점을 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보장한다는 본사 직원의 말에 솔깃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상품구입비와 가맹비 등 창업자금을 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희망은 불안으로 바뀌었다. 본사가 장담했던 유동인구도 순이익도 없었다. 밤늦게는 거의 손님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24시간 운용이 계약상 강제조항이었다. 인건비를 줄이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일했지만 점점 악화돼 갔다.

일매출 송금제는 그를 사채로 내몰았다. 매일 매출만큼 본사에 현금을 보내지 않으면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5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만두면 위약금 5000만원과 창업비용 등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본사는 적자영업마저도 용인하지 않았다. 재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예고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편의점 업주들은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고 해지 위약금을 크게 물어야 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그럼에도 달리 생계수단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창업에 나선다.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기술이 필요 없어 직장을 떠난 베이비붐 세대에다 취직을 못한 젊은 세대까지 뛰어들고 있다. 그 바람에 가맹점 수가 계속 늘어나 본사는 이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고 있다.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

지 몇차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등에 대해 유효하다며 뜻뜻미지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경쟁촉진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게 본연의 임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그러는 사이 임씨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대열은 불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전전하다가 자영업에 뛰어난 임씨에게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다. 비정규직이란 크레바스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 프랜차이즈 대기업과의 거래는 덩이 됐다. 임씨가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재기와 재취업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줬더라면, 편의점에서 성실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 어디에도 임씨 편은 없었고 그는 비국민이었다.

그렇기에 설사 경제민주화 구호가 쑥 들어갔다고 해도 세상이 조금은 달라져야 했다. 소신 없는 해바라기 경제부총리에 백억대 재산을 가진 김앤장 출신의 공정거래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한 가닥 남아 있던 희망마저 사라질까 봐 두렵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78691.html>)

<댓글>

- 첫 번째 문단에서 어제 평론의 진정성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비정규직부터 본사와 가맹점간의 불합리한 계약까지 청년실업으로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미래의 어두운 내면을 또 한번 보여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 어제 발표에서는 제가 바라보았던 관점에서 나아가 다양한 의견들을 들음으로써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통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의점 운영'이라 함은 어느 정도 운영 여건이 되는 '사장님'으로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니 돈을 벌고자 시작했던 창업이 본사와의 '노예계약'이 되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될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었으면 좋겠네요..
- 편의점 점주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기사의 내용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편의점 시급이 낮지만, 그 시급을 올려 줄 수 없는 점주...그리고 뒤에서 점주의 숨통을 죄는 본사... 이 문제의 해결을 국가가 해주었으면 좋겠지만..자유시장경제의 논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만 적절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고통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본사의 불공정한 계약이 참 안

타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를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은 짜다며 친구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에는 속사정이 있고 야누스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글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누군가 '여기도 있어오'라며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 곳만 바라 보는 단편적인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 수업 시간에 “편의점 점주는 소시민이 아니라..”고 발언했던 저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칼럼입니다. 저도 시장원리를 추구하는 바이지만 그 속의 어두운 면을 바로 알게 되는 하나의 칼럼이었고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판단하기에 앞서 한번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제 소신을 상기 시키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 칼럼을 다 읽고 나니 비국민이라는 단어가 비수로 꽂힙니다. 국민 100% 통합 사회, 국민 행복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에게 과연 국민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대기업의 CEO와 노동자 모두가 대통령에게 똑같은 국민이라면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사회의 룰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편의점 점주는 자본 시장의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착취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댓글을 쓰겠습니다. 편의점 점장이 되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한국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게다가 편의점 본사는 가맹계약을 최대한 많이 따내는 게 일입니다. 그런 점을 알고 가맹계약을 맺기 전 유동인구 파악이라든지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도 과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한 편의점 점주는 피해자이자 불쌍한 사람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는 이 사례를 시장의 잔혹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사적인 비극으로 보고 싶습니다. 물론 편의점 본사는 가해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 편의점이 비교적 관리가 쉽고 창업비용도 처음에는 외상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편의점 창업하긴 쉽지만 그 이후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철면피 영업이 계속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의 무지보다는 구조자체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대기업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 수중에서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들어가는 돈은 상당합니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분야를 불문하고 대기업 브랜드 하나쯤은 간판에 달아줘야 장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또한 브랜드만 찾아 헤매는 소비행태도 한 몫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개인의 무지와 선택이 불러온 비극일까요?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다면 배짱을 부리며 노예계약을 강요하는 기업의 철면피가 문제일까요? 다행히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보호하

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비도 상승하지 않을까요?
 □ 댓글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대기업이 을을 착취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머리 좋은 삼성 퇴직자들도 부지기수로 망합니다. 작은 편의점이라도 점주가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을 열기 전 자신이 매출 전망이라든지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야지, 자신과 입장이 다른 본사 말만 들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 관에서 끄집어내 갈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저는 이 사건이 구조적인 모순(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보다는 개인의 판단미스로 인한 비극으로 보입니다.

- 자본주의 체제 하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는 칼럼인 것 같습니다.
- 이 칼럼은 비단 편의점에만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x바게x, BBX(닭집), 던X 도너X, 베스X라빈X 등 프랜차이즈 지점들 모두 상황은 같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나 그 외 기타 등등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심화된 국가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어떤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 편의점업주=노동착취자, 아르바이트생=노동착취대상 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선입견이 이 정보를 통해 깨졌습니다.
- 요즘 대기업이 서민들의 질타아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고 여기저기서 가게들을 정리하고 하지만 그 자리를 또 다른 것(윙글에서의 편의점등)으로 대체되어 그리 달라진 거 같지 않아 한편으로는 허울뿐인 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 불공정 계약의 근본부터 뿌리뽑고 대기업들의 의식부터 먼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 구조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거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소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착취 아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미래의 세대들에게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과거시대 신분제도(양반, 평민, 쌍놈)의 불합리성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서로 상생, 발전, 공존하는 합리적 자본주의의 밝은 앞날을 기대합니다.

주요 이슈를 선정한 후 그 이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나누어서 각자의 입장에서 찬성이나 반대 평론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습을 하기도 한다. 정치적 입장에서 반론 작성을 하는 연습은 이 수업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는 연습이다.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1) 자신이 상대 편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한 다음 그를 지지하는 최고의 평론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의 이유와 함께), (2) 그 최고의 평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반론을 평론 형식으로 작성한다. 첫 번째 작업을 할 때 두 번째 작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 첫 번째 작업이 방해 받지 않도록, 즉 진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평론을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연습의 핵심은 반론을 작성할 경우 가장 뛰어난 상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상대는 공격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그런 상대를 성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나의 글(입장)이 강력해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선거와 관련해서 인물에 대한 지지 및 반대 평론을 연습하기도 한다. 2011년 서울 시장 선거 때 ‘참고 7’과 같은 과제를 제출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반대 편에서 가장 우수한 평론을 선정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그 평론 중에서 최고의 평론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반론을 펴는 연습을 했다. 즉 남학생은 나경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평론을 선정하고 여학생은 박원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평론을 선정했다. 그런 다음 남학생은 박원순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경원을 지지하는 가장 훌륭한 평론에 대한 반론을 쓰고, 여학생은 나경원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박원순을 지지하는 가장 훌륭한 평론에 대한 반대 평론을 작성했다. 상대방의 평론 중 가장 우수한 평론을 선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반론을 작성하는 연습은 이 수업에서 단골 메뉴에 속한다 (참고 8). 반론 작성은 정치적 이슈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치 및 사회 관련 평론 연습에서 많이 하게 된다.

참고 7.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서 토론을 합시다. 남학생은 나경원을 지지한다고 가정하고, 여학생은 박원순을 지지한다고 가정합니다. 각자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의 평론 중 가장 훌륭한 글을 하나씩 선정해서 올려주세요. 즉, 남학생은 나경원을 비판하거나 박원순을 지지하는 평론 중 가장 훌륭한 것을, 여학생은 박원순을 비판하거나 나경원을 지지하는 평론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글을 선정하여서 올려주세요.

참고 8.

최근 노무현 사건과 관련해서 수업시간에 선정한 상대방 최고 평론에 대한 반론 작성 연습입니다. 자신이 친노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반노의 가장 우수한 평론으로 선정된 198번에 대해 반론을 작성합니다. 반론 작성시 (1) 비판과 (2) 대안제시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기 바랍니다. 비판에 있어서는 상대방 주장의 핵심을 대상으로 하고, 근거가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공략하거나, 상대방이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내어서 비판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물평론도 이 수업의 중요한 메뉴다. 반드시 정치인일 필요는 없지만 가끔씩 사회적으로 유명하거나 이슈가 되는 인물에 대한 평론 연습을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 학생들 모두가 평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각자 다른 인물들을 선정해서 하기도 한다. 김종필, 노무현, 박근혜, 안철수 등 다양한 인물들이 그동안 평론 연습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학기에는 특정 인물을 정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정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인물을 골라서 평론연습을 실시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물평론과 서평을 함께 합치는 방식도 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평전을 읽고 그 책을 중심으로 서평을 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물평론이 쉬이게 된다.

가끔 선거에 관한 평론이나 기획을 하는 연습을 한다. 총선이나 대선 또는 보궐선거나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선거에 대해서 우선 할 수 있는 평론연습은 선거 관련 평론 중 좋은 평론이나 나쁜 평론을 선정하는 연습이다. 이 경우 편을 갈라서 연습을 하곤 했다. 예를 들면 2012년 대선에서 두 가지 연습이 가능했다. 하나는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편을 가르고, 자기의 편이 이기도록 즉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평론을 선정하는 연습이다. 학생들 각자가 먼저 최고의 평론을 선정한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고의 평론을 선정한다. 또 하나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이후 문재인과 박근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비슷한 연습을 할 수 있다. 큰 선거가 있는 경우 이와 비슷한 연습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선거 캠프를 구성해서 학생들 스스로 특정 정당의 선거 기획을 하는 연습도 가능하다. 선거 캠프를 구성하지는 아이디어는 이 수업의 첫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가 제안한 것이다. 그때는 3학점 6시간 수업을 했는데 1주일에 3시간짜리 수업을 두 차례 수행했다. 수업을 처음 개설한지라 어떻게 운영해야 좋을지 몰랐었고 매 수업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수업 준비를 위해 많이 읽기도 했다. 나의 그런 모습을 안쓰럽게 본 교환학생이 학생들이 평론을 하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제안하지는 의견을 냈다. 너무나 반가운 제안이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당시 진행되고 있던 선거를 놓고 가상의 캠프를 치리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구 수성구를 정하고 그 지역구에 나온 4개 당의 후보자를 위해서 운동하는 4개의 캠프를 차렸다. 이후 각종 선거 전략, 상대 당에 대한 공격 평론 및 우리 편 지지 평론 작성 등 다양한 실천연습을 했다.

홍보 기획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선거철에 할 수 있다. 2-3개의 정당으로 나누어서 홍보를 기획하는 연습을 했다. 이런 연습의 특징은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향상하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선거와 관련하여 ‘프레임’ 정하기 연습도 한다. 선거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먼저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학생들 스스로 특정 정당들로 나누어서 프레임을 만드는 연습이다. 가령 2012년 대선 때 지지 정당 별로 팀을 나누어서 선거 프레임을 만드는 연습을 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국민 연고’ 문재인”이, 박근혜 캠프에서는 “‘국민의 가장’ 박근혜”가 최종 선정됐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양한 프레임을 제안하고 모둠별로 토론을 거친 후 각 캠프에서 최고의 프레임을 선정했다. 전체 유권자의 사고를 특정한 방향으로 형성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보자는 원래 취지가 다소 퇴색하고 선거 구호를 만드는 연습이 된 측면이 있지만,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 연습도 한다. 연설문 작성은 2012년에 처음 시도했다. 연설문 작성은 학기초에 학생 제안 중 하나였는데 함께 토론한 결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시간 관계상 연설 연습은 많이 하지 못했고 연설문도 아웃라인만 작성했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고 정리해서 그를 바탕으로 연설을 해보는 연습이다. 연설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병행했다.

5. 평론지 제작

특정 주제에 대해 평론지를 제작하는 연습도 한다. 평론지 제작은 학생들이 모둠을 짜서 일종의 잡지를 기획하고 만들어보는 연습이다. 2010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3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실시했다. 여건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왔지만 앞으로도 꼭 지속하고 싶은 작업이다. 이 작업은 모둠별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따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쓸 것인지 정한다. 모둠 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고, 모둠의 활동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평론지가 좋은 결과를 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둠 성원들의 협력이다. 수업 시간에 평론지를 기획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려우므로 수업시간 외에 성원들 사이에 만나고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하나의 평론지가 특색이 있기 위해서 성원들이 하나의 주제나 시각에 합의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평론을 작성해야 한다. 이 연습을 할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것도 이 점이다. 평론지를 점수로 평가하는 경우 모둠별 공동 점수와 개별 점수를 따로 책정한다. 공동 점수는 평론지가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창의적이고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010년에는 두 개의 평론지가 작성됐다. 하나는 『천마프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구석구석을 학생들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살펴보는 작업을 했다. (천마는 영남대학을 지칭한다). 또 하나는 『청소년 탐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과 지역(대구 경북)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론들을 작성했다. 학생들이 표지를 디자인하는 등 열심히 참여해서 스스로의 만족도가 높았다.

2011년도에는 세 팀이 평론지를 작성했다. 모두 ‘청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청춘의 눈』, 『청춘의 덧』, 『청춘의 거울』이라는 제목의 평론지를 만들었다. 표지 디자인과 목차, 글의 초점 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협의해서 정했고, 평론 작성

을 위한 취재와 글쓰기 및 수정 등 모두 스스로 했다. 각기 특색 있는 평론지다.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고정관념’에 초점을 맞춘 평론지도 있고, 주로 영화평론을 통해 청춘을 이야기하는 평론지도 있다.

2012년도에는 네 팀이 평론지를 작성했다. 전년도들에 비해서 이 해의 평론지들은 완성도가 좀 부족한 편이다. 원인은 학생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대선도 있었고 연설문 작성과 시평연습을 새로 실시하기도 해서 다른 때보다 조금은 분주한 학기였다. 모둠으로 평론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학기말에 와서야 시작했다. 시간이 부족한 탓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기회와 노력이 적었고 그것이 결과물에도 반영됐다. 그럼에도 아래에 인용한 이재율의 글처럼 특색 있는 평론을 찾아볼 수 있다(참고 10).

2013년도에는 주간과 야간 수업에서 각각 세 팀이 평론지를 작성했다. 그 전해에 시간이 부족해서 만족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 해에는 중간고사 기간부터 평론지를 기획하게끔 했다. 아래에서 보겠지만 ‘주제어로 한국사회 읽기’를 처음 실시하면서 이를 평론지로 묶도록 처음으로 시도했다. 일찍 시작했지만 수업 시간 밖에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요즘 학생들은 나의 학창시절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쁜 생활을 보낸다!) 결국 학기말에 모둠별로 기획과 편집 등을 위해 수업시간을 할애했다. 결과는 대만족이다. 아래에서 상술한다.

평론지를 완성할 때면 모두 다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이 관례가 됐다. 평론지 작성 연습을 시작한 2010년 이전에도 이 수업에서는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친밀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학기 말에 식당에서 평론지를 돌려보면서 발표를 하고 코멘트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식당이 어수선하거나 불편할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동안 수고한 학생들과의 ‘작별의식’인 셈이다.

6. 주제어로 사회 읽기

주제어로 우리 사회 읽기는 2013년에 처음 시도한 연습이다. 이 연습은 열

개의 주제어로 중국 사회를 읽은 위화(2012)의 책에서 힌트를 얻었다. 우리말로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에서 위화는 열 개의 주제어로 중국사회를 읽고 있다. ‘인민’, ‘영수’, ‘독서’, ‘글쓰기’, ‘루쉰’, ‘차이’, ‘혁명’, ‘풀뿌리’, ‘산채’, ‘홀유’가 그 열 개의 단어다. 이 책에서 위화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중국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오가며 특정 주제어로 자기 사회를 읽고 있다. 각 주제어마다 대략 30-40쪽(A4 용지 6-7장) 정도 분량의 글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면 과연 위화처럼 풍부하고 예리하게 열 개의 주제어로 한국사회를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위화의 글은 소설도 아니고 전형적인 평론도 아니지만 그 어느 글보다 중국사회에 대해서 잘 알게 만들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 동안 A4용지 2장 정도를 평론의 분량으로 생각해왔고 조금은 분석적이고 딱딱한 글을 평론의 전형으로 생각했는데, 위화의 글은 전혀 새로운 형식의 평론으로 읽혔다. 이런 생각에 위화가 한 것 같은 시도를 우리 수업 시간에 도입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망설임 끝에 주제어로 한국사회 읽기 과제를 수업시간에 가져왔다. 별도로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모듈별 평론지를 전형적인 평론 대신 주제어 읽기로 제작하도록 유도했다. 이전의 평론지 제작과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반드시 평론 형식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평론을 작성해도 되고 다양한 형식을 사용하여 픽션을 더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도 된다. 다만 가상의 이야기일 경우에도 한국사회에 대해 적절한 개연성을 가지고 현실적이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원고의 분량이다. 이전에 비해 분량이 3-4배 많아졌다. 학생들에게는 이 부분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고통’이다. 긴 글을 쓰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A4 10장씩 쓰라고 주문했다가 나중에 5-6장으로 타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학생들은 부담이 줄어든 것에 기뻐했다.

결과는 애초에 내가 가졌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과제를 내주면서 나는 내심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다. 또 학생들이 한국사회를 읽어내는 핵심 주제어를 잡을 수 있을지도 걱

정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의 염려를 보기 좋게 날려버렸다. 한국사회 읽기를 위해 모듈별로 주제어를 정하고 편집을 어떻게 할지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 학기 중간과 기말 무렵에 각각 1시간씩 모듈별 시간을 가졌는데, 처음부터 눈에 띄는 토의 광경이 나타났다.

가령 주간 수업의 세 모듈 중 두 곳에서 ‘킵데기’와 ‘One Standard Korea’라는 주제어가 나왔다. ‘킵데기’ 팀은 우리 사회가 걸모습을 중시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One Standard Korea’는 모든지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후자는 나중에 ‘돈 Standard Korea’로 초점을 더 좁혔다. 야간 수업에서는 셋 중 두 모듈이 ‘아싸(아웃싸이다)’와 ‘막장’이라는 뛰어난 주제어를 생각해냈다. ‘아싸’ 팀은 소수자의 입장에서 한국사회를 바라보고, ‘막장’ 팀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 실제 막장드라마 같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발상이 곧바로 나온 것은 아니다. 모듈 성원들이 자유롭게 주제어들을 쏟아내고 거기에 대해 각자 의견을 말하고 서로 듣고 논평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할만한 주제어가 등장했다.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집단적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낀 소중한 체험이었다. 게다가 마구 웃고 떠들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즐겁고 재미있기까지 하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기발한 발상을 한 친구에게 모두가 감탄하고 아이디어 자체의 힘 덕분에 으쓱해 했다.

모듈 중에는 주제어를 정하지 못하거나 만족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의 한 팀은 ‘늘’이라는 주제어에 합의했다. ‘LTE’ 광고에서 가져온 ‘늘’은 한국사회의 ‘빨리빨리’ 문화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착상이 돋보였다. 하지만 막상 ‘늘’으로 보여주려는 ‘빨리빨리’ 문화는 ‘막장’이나 ‘아싸’에 비해 신선도가 떨어져 보였다. 주간의 한 팀은 첫 시간 내내 매우 열심히 얘기를 나눴으나 공통된 주제어에 합의하지 못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 모두의 시선을 휘어잡는 신선하고 창의적인 힘이 부족했다.

학생들은 다른 모듈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때마다 많은 자극을 받는 것 같았다. 모듈 간에 직접 가르치는 과정이 없었지만 ‘서로 배움’의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 자기 모듈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나와야 한다는

기대수준이 형성되었고, 스스로 그 기대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제어를 정하지 못했던 주간의 모습은 최종적으로 ‘베짖이 찬가’라는 그야말로 독창적인 주제어를 가지고 왔다. 우리 사회가 너무 일만 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어떻게 잘 놀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주제어를 정한 다음에 세부 기획을 하고 평론지를 제작하면서 초점과 시각이 정교해졌다. 가령 ‘아싸’ 팀은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 계층이 상승해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청소년에서 대학생이 되고 졸업 후 비정규직 사원, 정규직 사원이 되고 고위직에 오르고 노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소외된다는 것이 ‘아싸’ 팀의 주장이다. 대학에 들어가면, 취직하면, 정규직이 되면, 고위직이 되면, 은퇴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허망할 뿐이며 대부분의 우리는 일생 동안 ‘아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식도 등장했다. 어떤 팀에서는 관찰자가 따로 있어서 전체적인 과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을 곳곳에 배치했다. 소설, 시, 평론, 동호회 잡지, 동화, 만화 같은 다양한 형식을 개성 있게 활용했다. 특히 ‘베짖이 찬가’ 팀은 만화를 적절히 이용해서 글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았다. 한 사람의 일대기, 가족의 하루 일과, 10대에서 6-70대까지 세대별 조망 등 모둠별로 특색 있는 렌즈를 사용하기도 했다.

7. 선배와의 대화

선배와의 대화는 2012년도에 처음 실시했다. 계기는 졸업생 및 졸업예정 학생들과 밥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생겼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치평론연습 수업 시간의 에피소드들이 우리의 안주감이 되었다. 주로 좋았던 얘기들이다. 그 자리에 있던 몇 친구들이 수업의 영향으로 평론을 신문 등에 실은 경험이 있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친구들한테 수업에 들어와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과연 후배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중국에는 기꺼이 한 시간을 맡기로 했다.

전영진, 박진규, 구소라 이렇게 세 친구가 수업에서 발표를 했다. 수강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준 선배들도 무척 긴장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은 자기가 우리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웠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얘기를 해줬다. 또 후배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생활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얘기했다. 2013년에는 박진규와 박유수가 학기 초에 발표를 했다. 그 전 해의 학생들이 선배들과의 대화가 가장 좋았는데 이를 학기 초에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영진은 처음에 맞춤법과 마침표도 몰랐었는데 어느덧 『한겨레』에 3차례나 칼럼을 실은 경험을 얘기해줬다. 왜 대학교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들지에 대해서 한 편, 통합진보당 사태에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두 편의 글을 실었다. ‘기술전체주의 근본악 비판’을 주제로 『영대신문』에서 주관하는 ‘천마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전영진은 처음에 자신의 글이 신문에 실렸을 때의 설렘과 신기함을 강조했는데, 이 점이 특히 학생들한테 많은 공감을 준다고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 하면서 글쓰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써야 하며 작가의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진정성이 있으려면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의 진심과 자기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고민과 자기 색깔이 있어야 자기 이야기가 되며, 자신의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는 그 글이 서툴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소라는 원래 영문과 학생인 자신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겨레』에 글을 싣고, 『뉴스민』에 여러 차례 칼럼을 싣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좋은 글을 쓰려면 내용이 좋아야 하는데, 좋은 내용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 고민이 많아야 하고, 그 출발점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했다. ‘왜 하이힐을 신는가?’, ‘왜 비싼 커피를 마시러 학교 밖에까지 나가서 만나는가?’와 같은 사소한 일들에 대한 질문을 늘 하다 보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고민과 내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구소라는 자기가 쓴 칼럼들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질문들이 어떻게 평론으로 연결되었는지 설명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지금은 ① 사안의 문제점이나 쟁점을 먼저 파악하고, ② 구체적이고 중

합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③ 사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자신이 주장할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박진규는 『영대신문』에 두 학기 동안 고정칼럼을 쓰게 된 경위와 쓰면서 겪었던 경험담을 얘기해줬다. 학교 신문에 막상 학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불만을 갖고 글을 쓰게 되었고, 자신만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론과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자신은 논설이 아니라 칼럼을 좋아하는데, 글이 짧고 이야기 거리가 많으며 토론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진규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정해서 그 사람의 글을 계속 읽고 모방하기, ② 홈페이지에서 글쓰기, ③ 댓글이나 피드백을 받기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 갖기), ④ 컴퓨터가 아니라 손으로 글쓰기 (연필이 아니라 펜으로), ⑤ 조심하거나 신중하게 쓰려고 애쓰지 말고 가급적 거만하게 쓰기 등을 주문했다.

박유수는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최재천 의원의 인턴보좌관을 1년 동안 경험한 일을 얘기해줬다. 박유수는 정치평론연습 수업 시간에 최재천·김태일(2010)의 『민주당이 나라를 망친다, 민주당이 나라를 살린다』에 관해서 서평을 썼다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최재천 의원의 수행비서를 했다. 국회의원 인턴비서를 하면서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며, 보도자료, 축사, 청문회 질의서, 자료 요약 등 다양한 글쓰기의 기회가 있다고 했다. 두 개의 보도자료(보도협조요청)를 보여주면서 문단 나누기와 헤드라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보도자료가 좋아서 그대로 기사가 된 사례를 들면서, 글의 내용이 좋으면 별도의 로비나 홍보를 하지 않고도 널리 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특히 <참고 9>의 요령을 강조했다.

참고 9.

- ① 글은 항상 쉽게 쓰자.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꾸거나, 괄호를 사용해보자. 문장의 호흡을 짧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 ② 중복 표현을 자제하자. 전치사, 조사, 접속사 등의 남발은 글을 지저분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
- ③ 항상 사실관계에 기초한 자료 조사는 필수다.

- ④ 입으로 읽어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몇 번이고 수정해보자.
- ⑤ 문단을 나누자.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는 것보다 문단을 나누는 것이 글을 훨씬 깔끔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 문단을 잘 나누면 글을 읽는 사람도 쉽게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한 문단에 한 가지의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쉽게 글을 전개할 수도 있다.
- ⑥ 초안-수정안-제출안 과정을 거치자. 귀찮고, 힘들기도 하지만 보고 또 보는 것만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오타를 다시 한 번 더 수정하는 것도 좋다. 자신의 글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글에 익숙해져서 오류나 오타를 발견하기가 힘들어진다.

이 수업을 거쳐간 선배들의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나로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박유수가 제안한 내용 중 입으로 소리 내서 읽어보자는 것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다. 또, 학생들이 선생이 하는 얘기보다 선배들 얘기에 훨씬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직업이 불확실하고 자신들과 거리가 멀지 않은 선배들을 훨씬 가깝게 느끼며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더 큰 공감과 더 큰 울림을 가지고 듣는 것 같았다. 이 점은 강의평가에서 학생들이 남긴 짧은 글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학기에 가장 좋았던 수업내용이 바로 선배와의 대화였다는 점, 그리고 이 시간을 학기 말이 아니라 학기 초에 가졌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강의평가를 통해 내게 알려주었다.

Ⅲ. 배운 점

이 글을 준비하면서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돌아보니 학생들이 많은 열의를 가지고 참여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어떤 학기에는 내가 좀더 많은 열의를 가졌었고 어떤 학기에는 내가 조금 지쳐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수업의 결과 학생들이 올려놓은 평론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얼마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임했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와 열의도 영향

을 받았던 것 같다.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일간지나 대중매체에 글을 기고하는 학생도 생겼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성과는 자신과 후학들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된다.

학과 내에서 파급효과도 있었다. ‘정치평론연습’의 연장선에서 ‘정치토론연습’과 ‘정치논리와 수사’라는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 운영한다. ‘정치토론연습’은 주로 말하는 수업이다. 정치평론연습 수업이 주로 글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보완하여, 같은 학과의 구춘권 교수가 말하기에 초점을 맞춰서 2010년부터 ‘정치토론연습’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토론연습’ 수업은 학생들이 중요한 이슈를 토론을 통해 함께 선정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각자 그 주제에 대해서 2쪽 분량의 글을 준비해온다. 이 글은 평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초연설이다. 이 글에는 해당 이슈에 대한 원인, 결과, 주요 사안, 진행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분석과 논평이 포함된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준비한 글을 2분 동안 발표한다. 발표를 통해 각자의 견해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진영이 나뉘어지고 이후에는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수업이 생긴 이후 정치평론연습을 수강한 학생 중 상당수가 정치토론연습을 같이 듣는다.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 있는 두 수업이 서로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치논리와 수사’는 2009년 정병기 교수가 학과에 오면서 새로 개설했다. 정병기 교수는 우리 학교에 오기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글쓰기 교실을 담당할 경험이 있다. 정교수의 경험과 장점을 살리면서 정치외교학의 특성에도 부합하기 위한 과목으로 새롭게 개설한 것이 ‘정치논리와 수사’라는 과목이다. 이 수업은 논문을 쓰는 데 초점을 둔다. 기초적인 논리학의 대강을 강의한 다음 학생들로 하여금 권력과 관련된 영화를 한 편 선정해서 보고 한 학기 동안 그 영화를 분석하는 논문을 쓰게 한다. 학생들은 논문에서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서는 안 되며, 작가주의의 관점에서 영화 제작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해서도 안 된다. 영화를 마치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에서 특정 주제를 뽑아내고 자신의 논지를 세우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논문을 완성하는 것이다. 중간고사 이후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수업을 진행

한다.

그 동안 정치평론연습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한다. 먼저, 학생들과 서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칠 내용을 미리 정해서 수업에 임하는 것도 종종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 대강의 방향을 생각해두어야겠지만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내가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실 정치평론과 관련하여 특별히 가르쳐야 할 기술이나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교수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생각이 발전하고 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발상을 하게 된다. 이런 배움의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학생이라도 공부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애써야겠지만, 먼저 선생이 학생들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의심하거나 걱정했던 것보다 학생들은 훨씬 잘해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 (선생의 격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이 수업의 처음부터 배운 점이다. 나의 다른 수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평범한 친구들 중에서 대단히 뛰어난 평론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정치평론이 ‘지적 능력’과는 다른 ‘감수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미적 감수성,’ ‘도덕적 감수성,’ 또는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석력과 종합적 사고 이전에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영화를 보면서 다른 친구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색깔’을 중심으로 영화를 분석한 서광호의 경우 그것은 미적 감수성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감수성이 처음부터 두드러지지 않고 서서히 부각 되는 경우도 있다. 2012년에 수업을 들은 이재울은 학기 중간쯤부터 재미 있는 비유를 써가며 친구들의 주목을 받았다. 학기가 끝날 즈음에 그가 쓴 다음의 글은 이러한 비유를 잘 보여준다(<참고 10>).

참고 10.

YU에 온 두더지의 구멍파기연습

정치외교학과 이재율

두더지가 잘 컸다. 두더지가 YU에 오더니 잘 컸다. 이 두더지가 구멍파기연습(2학점)을 듣더니 잘 컸다. 뜬금없이 왜 두더지인가? 땅만 파며 잘 살면 될 두더지가 왜 영남대학교에 왔나? 두더지가 웬 구멍파기연습을 수강하는가?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이 두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본다면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땅 깊은 곳에서 자유롭게 구멍을 파며 사는 두더지가 있었다. 하지만 두더지는 나이를 하나하나 먹으며 학교를 가야 했다. 학교를 가니 이전처럼 자유롭게 구멍을 파며 살 수 없었다. 모두 똑같은 책상에 앉아 똑같은 크기와 깊이의 구멍을 파는 교육을 받아야 했다. 왜 똑같은 크기와 깊이의 구멍을 파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잘 파는 방법은커녕 재미있게 파는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저 파놓은 구멍이 얼마나 알맞은 크기의 구멍인지, 깊이가 제대로 파였는지 확인할 뿐이었다. 학교에 가야 했기에 두더지는 자유를 잃고 점점 기계화되었다.

두더지가 학교에 가고 난지 몇 년 뒤, 나이를 좀 더 먹으니 왜 그렇게 같은 크기의 구멍을 파게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두더지는 두더지게임기 속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이기 때문이었다. 두더지는 낙심하고 좌절했다. “고작 두더지게임기 속 두더지 한 마리가 되기 위해 나는 태어난 것인가.” 두더지는 고뇌하고 고뇌했지만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두더지는 어쩔 수 없이 두더지 기계 속 다른 두더지들처럼 평범한 두더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두더지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같은 크기의 구멍을 파는 방법만 가르쳐 주어서 기계를 만드는데 실패를 거듭했다. 두더지는 일반적인 두더지도 되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두더지는 더욱 낙심했다.

그러다 두더지는 성인이 되었다. YU에 입학하게 되었다.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두더지는 더 이상 구멍을 파지 않았다. 발톱은 무더져 날카로움을 잃은 지 오래였다. 세월이 흘러 구멍파기연습(2학점) 강의를 듣게 되었다. 듣고 싶어 들은 강의가 아니었지만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에 들어가니 교수 두더지가 구멍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구멍을 기왕 팔 거면 구멍을 군데군데 이상하게 파지 말고 5개의 구멍으로 나눠 파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연습하다 보니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 구멍에 머리부터 내밀라 했다. 구멍에 두팔식으로 몸을 배치해야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이었다. 또 머리를 내밀고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한마디하고 구멍에 숨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5개의 구멍에 어떻게 들락날락할 것인지 IN&OUT LINE 을 정하는 것이었다. 수강하는 두더지에겐 파격적인 방식이었다. 한 학기 동안 두더지는 열심히 연습했고 결국 자신만의 두더지기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자유롭게 땅 파고 살던 두더지는 어쩔 수 없이 두더지 기계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엉뚱한 것만 가르쳤다. 두 번 낙심한 두더지는 YU에 입학하더니 구멍파기연습 수강을 통해 자신의 두더지기계를 만들었다. 두더지기계는 5개의 구멍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짜여진 LINE 대로 머리부터 내미는 체계적인 기계였다. 골목에 배치된 기계는 인간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망치를 들고 두더지를 치기 시작했다. 5개나 되는 구멍 속에서 헬멧을 쓰고 머리부터 내미는 두더지를 때리며 스트레스를 푼 인간들은 웃으며 떠났다. 하지만 두더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련함이 더해졌다. IN&OUT LINE 은 점점 맞히기 어려워졌다. 두더지의 짧은 문장과 빠른 숨기에 망치질을 실패한 인간들은 두더지를 한번 때려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물 두더지 기계가 되었다. 어느 날 두더지는 구멍에서 나와 한마디 했다. “두팔식 머리내밀기와 5구멍, 짧은 문장, 그리고 IN&OUT LINE 이라면 당신도 구멍파기의 고수가 될 수 있어요.”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가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평론 과목의 활성화와 제도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평론이 정치학의 주요 분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문학도들이 문학평론을 공부하고 미술학도들이 미술평론을 배우고 실천하듯이 정치학도들이 정치평론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실습뿐 아니라 이론 과목도 개발함으로써 정치학의 주요 분야의 하나로 정치평론이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둘째, 전국의 학생들이 정치평론을 실제 실습하고 뽐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정치평론연습 수업에서 자신의 글을 주요 매체에 신는 경험을 갖도록 독려한다. 자신의 글을 실어본 학생은 매체에 글을 신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한 일이 아님을 체험한다. 이 체험은 중요하다.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하다. 자신감을 가질 때 학생들은 더 큰 일을 꿈꾸

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려고 도전한다. 대학생 평론대회를 개최하거나, 일간지 또는 인터넷 신문 등에서 정치평론가를 뽑는 일이 필요하다. 돈 없고 힘 없는 정치학도들이 정치가로 나아가는 ‘정치평론가’의 길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 ▶ Submitted : 2013. Nov. 05.
- ▶ Reviewed : 2013. Nov. 14.
- ▶ Accepted : 2013. Nov. 19.

References

- Choi, Jae Cheon, and Kim, Tae Il. 2010. *Minjudang-i Narareul Mangchinda, Mingudang-i Narareul Salrinda*. Seoul: Motivebook.
- Kim, Dae Young. 2005. *Gongron-hwawa Jeongchi-Pyeongro*. Seoul: Chaek-sesang.
- Walzer, Michael. 2002. *The Company of Critics: Social Criticism and Political Commitment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 Yu, Min Ho. 2012. Haengjang. Medichimedia.
- Yi, Hwa. 2012. Kim, Tae Seong. trans. *Saramui Moksorineun Bibboda Meolri Ganda*. Gyeonggi: Munhakdongne Publishing Group.